

장마철 '풍수해 감염병' 주의하세요

군산시보건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당부

군산시보건소가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특히 하천의 범람과 침수 발생 시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과 같은 감염 매개체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개인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으로는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 이질 등),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체 감염병(말라리아·일본뇌염 등)이 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등도 주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촉성 피부염 예방법으로는 오·침수지역 작업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외에도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작업 하는 틈틈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며 휴식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을 이용해 오염물 세척 등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안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며, 눈에 부종,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방역 물품 지원, 집단시설 및 침수지역에 3개 방역소독반을 집중투입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장마,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현 · 영등시립도서관, 30일부터 초등생 체험 활동 마련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서... 신청자 선착순 모집

익산시가 여름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영등시립도서관은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독서 활동과 문화·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수강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ibs.kns.go.kr)에서 가능하며 영등시립도서관은 16일 오전 10시, 모현시립도서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영등시립도서관(영등·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도담도담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나도 유튜브 △톡톡해지는 경제 놀이터 △조물조물 만들기 세상 △동화로 떠나는 세계요리 등 다양한 주제로 17개 과정을 운영한다.

모현시립도서관(모현·마동도서관)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위한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교실'을 준비했다. △여름나기 창작공예 △요리로 떠나는 세계여행 △관타스티크 매직스쿨 △핸드메이드 여름방학 등 풍성한 주제의 11개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모현·영등·마동·부송·유

천·금마·황등도서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교실 '여름아침자!'를 운영한다.

여름방학 독서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일깨우고, 다양한 주제의 독서 및 독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방학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별 각기 다른 세부 주제로 전문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미니 올림픽 △대한민국! 어디까지 아? △동요로 떠나는 세계여행 △엄마 아빠 어릴 적 여름이야기 △그림책으로 보는 나의 진로 등이다.

독서교실 우수 수료자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익산시장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현·영등·마동·부송·유천·금마도서관에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황등도서관은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 또는 각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소식통

익산 '키즈보석아카데미'

오는 30일 개최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인기 교육 프로그램인 '키즈보석아카데미'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전국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키즈보석아카데미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집중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귀금속·보석을 주제로 익산 역사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 학예사와 함께 하는 전시 설명, 신비한 보석 이야기와 보석 감정 및 감별, 보석 캐기 체험, 판다 팔찌 만들기, 탄생석 벽시계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30일 1기를 시작으로 31일, 다음 달 6일, 7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보석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 누리집(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773)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 주말 잇은 채 수해 복구에 '구슬땀'

용동면 수박 비닐하우스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시름에 잠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어 복구와 정리를 위한 활동

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현을 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14일 주말을 반납하고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날 정 시장과 직원들은 용동면의 수박 비닐하우스 농장을 방문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수된 수박 작물을 걷어

내고 비닐과 자재 등을 정리하며 막대한 주인의 시름을 달랠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를 통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김천시, 농특산물 교류·판매 16년째 이어져

18~21일,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5곳서 김천 과일 직거래 판매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김천시의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가 오는 18일 군산시청과 군산로컬푸드직매장(장미동)에서 펼쳐진다.

2009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는 두 도시의 상호 우호 증진과 함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장에선 김천시의 농특산물인 포도, 자두 등 싱싱한 여름 제철 과일이 선보이게 된다.

군산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민들과 유관기관에 SNS, 전광판,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김천 과일 팔아주기 행사를 홍보하는 한편 사전 접수도 진행해 포도 600상자, 자두 2,000kg, 복

숭아 2,000상자 등 총 3,800상자, 5천70만 원 상당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작년보다 품목별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전년보다 1,100여 상자 사전 주문 물량이 증가했다.

사전 주문한 과일은 오는 18일 군산시청과 군산로컬푸드직매장(장미동)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직거래 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이달로 오는 21일까지 사전 주문을 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5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된다.

'포도의 왕'이라 불리는 사인머스켓은 2kg에 30,000원, 김천의 대표과일 자두는 3kg에 23,000원, 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복숭아는 1kg에 10,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김천에서 생산되는 최상품의 제철 과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자매도시 교류·판매 행사를 지속 운영하여 시민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농특산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군산 청년정책 포럼' 성료

군산 청년들의 정책 제안의 장

군산 청년들의 정책 제안의 장, '2024 군산 청년정책포럼'이 13일 오후 군산시 청년플(오원환 센터장)에서 열렸다.

'청년의 미래! 청년이 만드는 정책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군산의 청년단체와 군산 거주 청년, 전문가, 청소년, 시민이 참여해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토의하는 청년 참여형 포럼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의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미래'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미래세대의 삶과 마음을 살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년 문제와 정책을 다루는 지점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청년단체(군산청년협의체, 군산청년정책아카데미, 군산청년포럼, 군산청년참여네트워크, 군산시 4I-연합회) 대표 5명이 각자의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을 제시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의를 진



행하였다.

특히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소 방안까지 제안함으로써 청년 참여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문화 복지카드, 청년 참여 예산 증액,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 강화,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의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기타 관련 사항은 군산시 청년플 홈페이지(http://gsyou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표 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산시는 2024년 7월 관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총 302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신축아파트 및 항공기 과세물건 수가 증가하면서 공시가 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을 상쇄해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재산세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여 고지서 미수령 또는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